

‘대안미술공간’ 재정난에 정부지원금 축소까지...



기금마련전이 열리고 있는 대안공간 ‘아트 스페이스 풀’ 전시장 모습.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 존폐 기로 ‘아트 스페이스 풀’ 예술인들이 다시 일으킨다

16년 동안 대안미술공간의 망명 자리를 지켜온 ‘아트 스페이스 풀’이 새 출발을 모색하고 있다. 재정난에다 정부 지원금 축소까지 겹쳐 존폐의 기로에 섰던 이곳은 기금마련전, 미술계 구성원들과의 협력, 비평의 활성화, 작품 목록화 등을 통해 대안적 역할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서울 세검정로 주택가에 위치한 풀 전시장에는 작품이 빼곡하게 걸려 있다. 다음달 17일까지 열리는 기금마련전 취지에 동참한 작가들이 평소보다 낮은 가격에 작품을 출품했다. 원로와 중견, 신진 작가까지 세대가 어우러져 모두 58명이 참여했다. 강홍구·공성훈·김범·김정현·민정기·박찬경·안규철·윤석남·주재환 등 낯익은 작가들의 이름도 눈에 띈다.

“신생 대안공간들이 일단 모이는데 의미를 두고 움직인다면, 풀은 짧지 않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전시와 교육·비평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네트워크와 역할을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올해 초 부임한 이성희 대표는 “풀을 중심으로 모인 기획자, 작가들이 기획과 운영에 대해 제안하고, 나아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다양성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이 올해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되자 그는 기금마련전과 함께 후원회원 확충에 나섰다. 상업성이 없는 대안공간 재정이 정부 지원금과 후원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지원금 축소는 큰 타격이었다. 전시 기획에는 이 대표와 안소

16년간 수많은 예술인과 인연  
2004년엔 비영리 사단법인화  
작가 58인 ‘기금마련 특별전’  
비평·설치 등도 꾸준히 진행

현, 이수연, 채은영 등 여성 큐레이터들이 재능기부로 힘을 합했다. 또 미술계 안팎 100여명이 풀 전시장을 수리하고 후원비를 걷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독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설치작가 양혜규씨는 2010년 풀 홈페이지 제작 지원에 이어 이번에도 후원자로 참여했다. 양씨는 이달 말부터 작가 김진주씨의 진행으로 풀 전시장에서 제작되는 팟캐스트 ‘말하는 미술’의 제작자 역할도 맡았다. 이 대표는 “양작가처럼 자신은 제도권에서 성공했지만 대안공간의 존재와 역할에 관심을 갖는 이들의 존재가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풀은 1999년 3월 서울 관훈동에서 시작됐다. 작가, 기획자, 비평가 등 2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개관기념전인 ‘정서영·최정화 2인전’을 열었다. 풀이란 이름은 초대 대표였던 미술평론가 이영욱씨(전주대 교수)가 김수영의 시 ‘풀’에서 따온 것으로 불굴의 청년정신, 대안적 실험 추구를 상징한다. 2004년 임대료 인상 때문에 현재 위치로 옮겨오면서 비영리사단법인이 됐다.

그동안 풀을 거쳐간 미술인은 많다. 작가 황세준·박찬경·안규철·강홍구·양혜규, 미술사학자 윤난지, 큐레이터

박만우·조선령·주은지 등이 이사나감사로 운영에 참여했으며 최민화·박이소·장영혜·이수경·배영환 등이 전시를 열었다. 성완경·이영준·김진송·진중권 등은 교육프로그램 강사로 나왔다. 오랫동안 ‘새로운 미술’의 대명사로 자리매김돼 왔다. 현재 운영진은 김성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수기 현실문화 연구대표, 홍기빈 글로벌경제연구소장 등이다.

이 같은 전통 위에서 풀은 전시와 비평, 양 분야의 실험을 이어나간다. 우선 다음달 29일 시작되는 전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눈에 띈다. 풀을 비롯한 대안공간의 철학인 호혜성과 증여론이란 개념을 돌아보는 전시를 위해 이정현 기획자, 유창창·이운호·정찬일 등 작가들이 마을주민 9명과 함께 6차례 워크숍에서 돈을 제외한 물질 및 비물질의 교환과 증여를 실험하고, 그 결과를 작품으로 선보인다. 또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의 통금과 후함’(26일 오후 5시, 김도형 관동대 교수), ‘좀비 세계에서 예술작품의 근원’(5월 24일 오후 5시, 신승환 가톨릭대 교수) 등 5차례 강연도 마련한다.

비평 활성화는 풀이 주목한 작가들의 작품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작품의 목록화는 평면 작품을 넘어 사운드, 비디오,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제작 과정과 설치과정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상업성이 약한 작가에 대한 개인 소장자나 미술관 등의 관심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운정 선임기자

yjhan@kyunghyang.com